

(2) 신굿(내림굿)

일시 : 1994. 7. 5~6.

장소 : 별량면 두고리 덕산마을

무당 : 박경자 · 김천심 · 김수정(여, 51)

악사 : 김순태

이 지역에서는 내림굿을 신굿이라 한다.

신굿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박선희(여, 57)이다. 박선희는 4년 전에 이미 신을 받아 집에 신당을 차리고 있다. 신당에는 시할아버지, 할머니, 시큰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을 모시고 있다. 조상신이 내려 몸이 아파서 굿을 하고 신당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데 박씨는 신당을 차렸으나 본격적인 점쟁이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최근 박씨는 마음이 한가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신의 말을 자주 해주었다. 다시 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박씨를 조정하는 신은 신당에 모셔진 조상이 아니라 남편의 큰어머니 곧 시숙모이다. 오늘 굿은 이 시숙모를 맞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보내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벌이게 되었다. 언젠가 이 시숙모에게 옷을 한 벌 대접하고 보내드렸는데, 다시 오겠다고 하여 오늘 모실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박씨의 시숙모는 남편이 죽은 뒤 개가를 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박씨의 남편이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큰아버지 제사 때 행적을 모르는 큰어머니의 젓밥도 같이 차린다.

김수정은 본래 무계 출신이나 굿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무업을 시작했다. 단골 박경자에게 기능을 배웠다. 이번 신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산 굿

박씨의 시숙 모 앞에서 했다.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이루어졌다. 박경자가 사방에 소금을 뿌려 부정치기를 한 후 산신상을 차렸다. 고인 김순태가 북과 쇠를 치며 산신경을 읽었다. 이어 박경자가 고풀이 무가를 부르며 산신고를 풀었다. 산신고를 푼 다음 박선희에게 신이 내리는가를 보기 위해 근처 나뭇가지를 꺾어 신대를 잡게 했다. 징·북·뽕과리 등을 난타하자 박씨에게 신이 내려 나뭇가지를 들고 격렬한 몸동작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칠성고를 박씨에게 풀게 했는데, 칠성고를 푼 뒤 고를 들고서 춤을 쳤다. 시숙의 혼이 내린 것이라고 했다.

② 조왕굿

김천심이 부엌에 앉아 징을 치며 조왕경을 구송했다. 저녁 10시부터 8분 정도 짙막하게 끝나는 굿이었다.

③ 성주굿

김수정이 주무가 되어 굿을 진행했다. 청중들은 악사 뒤쪽에 둘러앉아 굿을 지켜봤다. 김씨가 안방의 성주상을 마주하고 앉아 정쇠를 치며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일러라 조선은 국이요...”로 시작하여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아뢰고, 그 목적이 박선희네의 유고를 없애는 것임을 알리고 당산·철룽·성주·조상들을 청배했다. 이때 김순태는 장구, 박경자는

장, 김천심은 북을 치며 김수정의 곳을 도왔다. 이어 단골 김수정이 일어나 악사들과 마주 보고서 양손에 신칼을 들고 말려주야를 불렀다. 진양조로 된 이 무가는 김씨가 선창하고 악사들이 바라지를 하는 특이한 가창방식의 노래이다. 이어 당산풀이, 제석풀이, 성주풀이, 중타령을 불렀다. 그후 김수정이 다시 앉아 악사들과 재담하고 도량경, 명당경을 구송했다. 악사들의 연주가 한참 계속되다가 김수정이 일어나서 성주고를 풀며 성주고풀이를 불렀다. 이어 노적을 청하고 엽을 청한 후에 액쌀을 동서남북으로 조금씩 흩뿌리면서 액막이소리를 불렀다. 이 지역에서 성주굿은 항상 액막이소리로 끝난다.

④ 혼맞이

마당으로 옮겨서 진행했다. 밤 12시 31분부터 1시 15분까지 계속됐다. 가족과 마을사람들은 마루에 앉아 곳을 지켜봤다. 박경자가 주무가 되어 양손에 신칼을 들고서 당산살풀이, 말미야, 천근소리를 불렀다. 이어 ‘앙와신아 가자스라(가자서라)… ….’ 하며 신칼 꽃술로 뉘을 집어들었다. 뉘을 들어올린 후 ‘앙와신아 여와주세… ….’ 천근소리를 부르다가, 신광주리를 들고 악사들과 재담을 하고 염불을 한 후, 장단에 맞춰 신광주리를 들고 춤을 추었다.

⑤ 신대잡기

밤 1시 20분부터 2시 55분까지 마당에서 계속되었다. 오늘 굿이 신긋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거리였다. 그릇에 쌀을 담아 거기에 대(竹)를 세우고 박선희에게 그 신대를 잡게 했다. 신대가 흔들리면서 박씨의 손이 떨리고, 신이 내린 박씨가 신대를 들고서 춤을 췄다. 세 번에 걸쳐 신이 내려왔는데 시아재,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그런데 박씨가 내린 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점쟁이인 김천심이 직접 신대를 잡기로 했다. 바로 시아재가 내려와 받고, 이어 시숙모를 받기로 하여 집 앞 삼거리로 나가 시숙모를 받았다.

⑥ 해원

김순태가 징을 잡고 앉아 해원경을 읽었다.

⑦ 고풀이

박선희가 신고를 풀었다. 이렇게 신고를 풀게 됨으로써 시숙모는 박선희의 신당에 완전히 좌정하게 된다.

⑧ 거리굿

굿소리를 듣고 몰려온 객귀들에게 음식을 주어 돌려보내는 거리이다.